**요한일서** 12/31/2020

**제목과 배경:** 1세기에 일어난 이단들 중에 그리스도의 완전한 인성을 부인하는 거짓 교사들이 있었다. 이 견해는 당시 영지주의(靈智主義, Gnosticism)라는 이단이 주장하였으며, 요한일서가 기록된 주된 배경을 이룬다.

**저자와 기록연대**: 이 편지의 저자는 세베대의 아들 요한이며, 예수의 사도이자 요한복음과 요한계시록의 저자이기도 하다. 기록연대는 정확하게 알 수는 없으나, 주후 90년 경으로 추정된다.

**주제:** 요한이 이 서신을 기록한 기본 목적은 두 가지이다. 첫째, 거짓 교사들을 밝혀서 퇴치하고, 둘째는 신자들에게 구원의 확신을 주기 위함이다. 영지주의 교사들은 영은 완전히 선하고 물질(육)은 완전히 악하다고 가르쳤는데, 이에 대해 요한은 그들이 전적으로 도덕성을 결핍했음을 비판함과 동시에 인간으로 오신 예수를 자신의 눈으로 직접 보고 교제했음을 증언함으로써 독자들이 성육신하신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확증하려 한다. 독자들이 그런 믿음을 갖는 것이 그에게 충만한 기쁨을 줄 것이라고 말한다.

**개요**

1. 서론: 성육신의 실재 (1:1-4)

2. 성부, 성자와의 교제의 중요성 (1:5-2:28)

3. 하나님의 자녀의 표지 (2:29-4:6)

4. 그리스도인의 윤리 (4:7-5:12)

5. 그리스도인의 확신 (5:13-21)

**요한이서** 1/11/2020

**제목과 배경:** 1-2세기는 순회 전도자들과 교사들이 복음을 이 마을 저 마을로 다니면 전파했으며, 신자들은 이 선교사들을 자기 집으로 영접하고 떠날 때에는 여행 경비를 드리는 것이 당시의 관습이었다. 그러나 영지주의자들도 이 관습에 의존하고 있었으므로 사도 요한은 순회 사역자들을 지원할 때 분별하는 지혜를 갖기를 당부한 것이다.

**저자와 기록연대**: 이 편지의 저자도 요한일서와 같이 사도 요한이며, 거의 같은 시기에 기록한 것으로 보인다 (주후 90년 경). 두 서신 사이에 유사점이 매우 많기 때문이다. (5절과 요일 2:7, 6절과 요일 5:3, 7절과 요일 4:2-3, 12절과 요일 1:4)

**주제**: 저자 사도 요한은 그리스도인들이 서로 사랑하는 것의 중요성을 가르치고 있다.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명을 순종하는 것이며, 또한 하나님의 계명 중 가장 중요한 것이 사랑을 실천하는 삶을 사는 것이다. 또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거듭 말하면서, 성육신을 언급함으로써 (7절) 그의 신성과 인성을 동시에 강조하고 있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하는 자들을 사랑으로 대접하고, 아니라고 가르치는 자들을 멀리할 것을 명령한다.

**개요**

1. 인사 (1-3)

2. 칭찬 (4-6)

3. 경고 (7-11)

4. 결론(12-13)

**요한삼서** 1/11/2020

**제목과 배경:** 사도 요한이 아시아(지금의 터키 서부)에 보낸 순회 교사들을 배척한 교회가 있었는데, 그곳에 디오드레베라는 독재적 지도자가 있었다. 그는 요한이 파송한 사역자들을 대접한 교인들을 출교시키기까지 하였다.

**저자와 기록연대**: 이 편지 역시 요한일서와 요한이서와 마찬가지로 주후 90년 경에 사도 요한이 기록한 것으로 본다. 요한은 말년에는 장로로 섬기고 있었고, 요한이서와 요한삼서에서 자신을 장로로 칭하고 있다. 두 편지를 비교해 보면, 서두에서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 그리고 각각 4절에서 “진리 안에서 행한다”는 동일한 표현을 사용하고 있으며, 결론도 매우 비슷함을 볼 수 있다.

**주제**: 요한은 자기 친구이자 그 교회의 지도자인 가이오에게 그의 도움에 감사함과 동시에 그를 격려하기 위해 편지를 보낸다. 또한 사도 요한의 리더십을 배척하고 복음에 협조하지 않는 디오드레베를 책망하고, 그가 방문하여 그를 직접 권징할 것을 약속한다.

**개요**

1. 인사 (1-2)

2. 가이오에 대한 칭찬 (3-8)

3. 디오드레베를 정죄함 (9-10)

4. 가이오에 대한 권면 (11)

5. 데메드리오의 모범 (12)

6. 결론 (13-15)